

21세기 한민족시대, 벤처인의 비전과 전략

2007. 11. 17

백영훈 (한국산업개발연구원장)

21세기 한민족시대, 벤처인의 비전과 전략

백영훈 (한국산업개발연구원장)

1. 오늘의 경제를 보는 역사의식

현재라는 시점에서 역사를 돌아보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임무이다. 어떠한 이해와 교훈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인가. 어떠한 미래를 그 역사의 거울에 비춰볼 수 있는 것일까. 그것은 지금 이 땅에 살아 숨쉬는 우리 모두가 생각해야 할 문제이다.

21세기. 그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오늘이란 과거를 되돌아 볼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일 것인가. 앞으로 세계를 이끌어 가게 될 국가는 누구이며 어떠한 이념적 사상이 승자가 될 것인가. 과연 오늘처럼 치열한 지구촌시대의 국제경쟁 속에서 대한민국이 맞게 될 앞으로 10년 후의 우리 경제는 어떠한 모습일 것인가.

우리의 반세기 역사는 세계사의 200년과 같다. 경제사적으로는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를 거쳐 이제 정보사회에 와 있다. 우리의 건국사는 압축경제의 역사였다. 그만큼 구보의 역사였고 고성장의 역사였다.

물론 지난날의 경제발전이 ‘압축적’ 이었던 만큼 주름과 상처도 깊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절대다수의 국민이 노고를 바친 산업화와 경제발전은 의식이나 이념으로도려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이 걸어온 40년은 우리가 100년 전에 놓쳐버린 역사의 입구를 되찾아 서둘러 근대를 졸업하고 ‘세계사의 표준시간’ 속으로 진입하려는 인간힘과 몸부림의 역사였다.

60년대 우리의 국민소득이 80달러 언저리를 맴돌고 있었다는 사실은 우리 국민전체가 근대이전, 그것도 세계 최빈국이란 ‘비참한 전근대’ 속에 갇혀 있었다는 말이다. 40년이란 짧은 세월 속에서 그 ‘비참한 전근대’ 를 박차고 세계 10대 통상국가의 대열에 올라서 ‘변방의 시간’ 을 살던 우리의 운명을 ‘세계사의 표준시간’ 을

사는 삶으로 바꿔놓은 것이 대한민국의 역사다.

따라서 이 시대를 책임져야 할 우리 벤처인들은 이제 미래를 바라보며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미래적 ‘아젠다’가 무엇인가에 대해 올바른 진단을 내려야 한다.

지난 40년간 대한민국 경제의 비약적인 발전에는 무엇보다 잘살아보겠다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적인 희생이 자리 잡고 있었다. 전쟁의 폐허 앞에서도 다시 할 수 있다는 희망의 씨앗을 잃지 않았다. 지금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희망이란 마음이다.

지금 우리 경제는 역사적 시련기에 직면하고 있다. 한·미 FTA시대의 개막, 국경 없는 경제전쟁, 세계적 패권주의, 디지털 혁명 등의 소용돌이 한가운데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생각해야 할 것인가.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던 발전의 엔진은 멈춰지고 새로운 세기를 이끌어 갈 경제원 동력이 쇠퇴하고 있다.

지금 우리주변은 중국·인도 등 세계사의 표준시간을 달리는 경주가 일어나고 있다. 50년간의 반식민상태에 이어 30년간의 공산독재 속에서 기아와 기근이란 전근대적 용어를 달고 다니던 13억 중국 역시 크게 일어섰다. 한국이 일본의 100년 역사를 40년으로 단축했다면, 중국은 한국의 40년 역사를 20년으로 단축하며 달려가고 있다.

100년 전 낙후된 ‘변방의 시간’ 속에서 탈출 경쟁을 벌였던 동북아3국은 이제 미래라는 세계사의 중심무대위에서 다시 경쟁하고 있다. 이 싸움의 승패에 따라 우리가 100년 만에 다시 ‘변방의 시간’ 속으로 굴러 떨어지고 말 것인가 아니면 ‘세계사의 표준시간’과 ‘세계의 중심 무대’에서 국민의 힘과 생각을 미래로 모아 재도약할 수 있느냐가 판가름 나게 될 것이다.

2. 한류시대의 경제전망

세계는 지금 한류시대가 열리고 있다. 경제뿐만 아니라 예술, 문화, 스포츠 등 모든 분야에서 한국의 물결이 세계에 고동치고 있다. 지금은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

계적인 시대가 된 것이다.

세계적인 역사학자 「폴·케네디」는 한국은 비록 작은 나라이지만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역량과 도덕심 그리고 교육열과 충효사상으로 뭉쳐진 한민족의 혼이 21세기 세계사의 중심에 우뚝 서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한민족의 정신력과 기상이 세계 도처에서 새 물결을 일으키고 있다. 인도의 시성 ‘타고르’가 예언한 동방의 작은 햇불이 세계사에 새롭게 비쳐지고 있는 것이다.

지금 전 세계는 ‘코리아 이슈’가 세계의 큰 흐름이 되었다. 마치 한국이 지난 40년간 황금의 기적을 낳았던 것을 모델 삼아 후진국들이 자기 나라의 발전을 어떻게 이루어낼 것인지를 연구하고 있다. 바야흐로 한민족이 21세기 세계사의 중심무대에 우뚝 서 있을게 된 것이다. 이처럼 한국이 세계 속에서 우뚝 서게 한 원동력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 조상들이 남긴 가난의 「한」과 「혼」을 딛고 우리가 이룩한 한강기적의 열매였다.

우리는 이제 도도히 흘러가는 역사의 흐름에서 세계가 요구하고 있는 한국시대의 책임과 역사적 소명을 저버릴 수가 없다. 지금 세계에는 약 170개 국가에 700만 명의 한민족이 살고 있다. 이들은 모두 지난날 불우했던 역사의 뒤편길에서 조국을 등지고 먼 이국땅을 찾아 외롭게 살아온 한민족의 후예들이다. 이제는 바로 그 후예들이 세계사를 이끌어갈 주역들로서 탈바꿈된 것이다.

위대한 공동체, 평화롭고 안전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은 위대한 개인 엘리트가 아니라 높은 도덕성을 갖춘 ‘공동체의 엘리트’이다.

기능적 재능에다 공동선에 대한 헌신과 희생의 결의가 찬 도덕적 엘리트에 의해서만 위대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

역사의 그늘에서 억눌렸던 민족의 능력이 지난 40년간 폭발하여 성취한 ‘한국혁명’의 위대한 한인 역사를 어떻게 이웃공동체, 대한민국 사회공동체, 한인사회공동체, 인류사회공동체에 합치되도록 수렴, 통합하느냐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이제 우리들은 조국의 역사 앞에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대한민국 ‘근대화 혁명’은 외부에서 주어진 제도 위에서 개방된 무질서한 폭발로

만들어진 작품이다. 이제는 주어진 기준과 제도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기준과 제도를 지구촌적 차원에서 만들어야 하고 무질서한 폭발로 전개된 ‘근대화 혁명’을 체계 있고 조화롭게 정리하고, 승화시키기 위하여 공익, 공동선에 충만한 도덕성 높은 엘리트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근대화 혁명’을 성취한 대한민국이 위대한 사회 공동체 그리고 지구촌 시대의 위대한 모범으로 변환될 수 있는냐는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 대명제이다.

이와 같은 역사적 대명제 앞에서 이제 우리 벤처인들은 세계사를 이끌어갈 한민족의 새 역사 앞에서 새로운 전진의 명제를 찾아야 한다. 국가경쟁력을 결집시키고 경제 재도약을 위한 국민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들이 앞장서서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 민족에 내려준 새 역사의 사명감 속에서 우리 벤처인들이 태평양 시대의 주역으로서 민족의 역량을 총집결해 나가야 한다.

앞으로 50년 후에 오늘의 역사를 평가할 때 과연 후세 사학자들이 오늘의 역사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성공한 역사로 오늘을 기록할 것인가, 실패한 역사로 평가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놓고 우리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독일의 철학자이자 세계적인 사상가인 헤겔은 ‘역사는 두 번 반복된다.’는 명언을 통해 현대인들에게 역사의 교훈을 항상 가슴에 새기고 실패하는 역사를 만들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 벤처인들은 결코 역사의 방관자가 될 수 없다. 도도히 흘러가는 역사의 중심에서 한국적 비전을 새롭게 정립하고 열려 있는 한민족의 세계화 시대를 이룩하는 대열과 함께 뛰어야 한다.

3. 벤처기업의 경영전략

21세기를 맞이하는 오늘의 세계경제는 폭풍전야에 휘몰아치는 거센 바람이 밀려오고 있다. 국경없는 경제전쟁, 세계적 통상마찰, 기술패권주의, 지역통합, 글로벌리제이션 등 실로 얼마전까지만 하더라도 예상할 수 없었던 새 파도가 밀려오고 있다.

지난 일세기 동안을 이어온 경제질서를 근원적으로 파괴하고 다가오는 21세기를 이끌어갈 새로운 경제질서를 모색하고 있다. 기존체제가 붕괴되면 변화의 필요성은 필연적으로 대두된다.

이제, 우리 벤처기업인들은 오직 역사적 방법으로 대응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미래를 열기위해 미래 안으로 뛰어든 실존은 불확실한 성패에 대한 결과적 비판의 관람자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우리기업인들은 새로운 역사적 도전에 앞서 새로운 국제경쟁질서에 뛰어드는 산고를 치러야 한다.

오늘날처럼 격변하는 국내외 경쟁환경과 여건에 대처하기 위하여 변화의 흐름에 새로운 가능성으로서의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사내구성원의 의지를 확산, 결집하여 세계적 기업전략의 기품을 간직함으로써 조직영역에 걸쳐 『믿음직스러운 리더십』을 발현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기업혁신 요청과 역사적 소명 앞에서 우리 벤처기업인들은 결집된 경영조직역량을 승화시키고 참신한 기업가상의 진수를 빚어내야 할 것이다.

이제 세계는 물리적으로는 『지구촌』이 되었고, 심리적으로는 인류싸움의 『한마당』이 되었다. 세계는 지구촌시대의 경제전쟁은 시작되고 있다. 우리는 『지구촌』이라는 『한마당』에서 연출되는 『관계극』의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

지구시대적 경쟁의 물결이 몰아닥치고 있다. 내가 투망하지 않으며 남의 주망에 걸려드는 비정한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기업은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에 직면한 것이다. 기업의 생존기반이 달라지고 경영여건이 총체적으로 변신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다.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뿐이다. 국제경쟁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일이다. 경영의 논리·조직·시장 등이 지난날의 모습과는 판이하게 달라진다.

협소한 국토와 부족한 산업입지, 가용자원의 제약을 받는 가운데서 수출 물동량을 힘겹게 동원했던 지난날의 수출정책은 아마 그 한계점에 도달된 상태이다. 앞으로 전개된 경영전략은 국제적 경제기반 위에서 조성되어야 한다는 새로운 전략개념이, 우리 경제정책의 주도적 기능으로 재인식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앞으로 우리기업이 지구촌시대에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우리기업의 국제적 기반

의 뜻은 한국경제의 미래적 과제를 개척하는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본보기로 평가되어야 한다. 우리의 기업들이 무한히 열려있는 국제경쟁에 도전하기 위하여 그들 스스로가 열정적으로 그 가능성을 탐색하는 모습을 보일 때, 열려진 세계는 우리들의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다.

지구형 기업의 등장을 가능케 한 세계경영의 조류로서 다음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기호의 공통화는 문화권, 종교, 언어, 교육, 기후 등의 차이를 넘어서 공통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제품이 보급되고 보편화되고 있다. 벤처기업의 시장은 지금 지구화되고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지구형 상품의 시장규모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둘째, 경영자원의 이동이 가속되고 있다. 지금 세계의 자본은 24시간 끊임없이 거래되고 있으며 아주 사소한 이윤 차에도 민감하게 반응되어 이동하고 있다.

지금 세계경제는 하나하나의 나라의 집단이 아니라 세계를 하나의 시장으로 보는 시대에 들어서고 있다. 그러한 움직임은 통신·교통 등의 발달에 따라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컴퓨터의 급속도 성능향상, 하드웨어·소프트웨어의 규격공통화는 정보통신의 고도화를 추진하고 지구를 더욱 협소하게 하고 있다.

그리하여 세계의 기업은 각기 『지구형 상품』을 개발하고 세계의 자원을 가장 유효하게 활용하여 생산하고 세계시장에 판매할 수가 있게 된 것이다.

지구기업시대에 있어서는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가 중요시되는 것이 아니라 『범위의 경제(Economy of Scope)』가 더욱 중요시된다. 따라서 지구 기업시대의 요체는 경영조건을 범위의 경제를 위하여 현지화하는 일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품, 공정하청 등 이른바 로컬컨텐츠의 비율을 확대하고 현지 사회구조 안에서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경영체제의 발굴이다. 인적자원의 현지화, 투자기술의 현지개발까지 현지주민과의 일체감 위에서 사업을 경영하는 현지 경영전략을 말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기업의 로지스틱활동이 생산, 기술개발까지 국제적인 영역으로 그 폭을 넓히고 있는 현실에 따라 매니지먼트도 지구형체제화 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국제화의 진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시장개방과 산업 내 수평분업화를 전개함으

로써 자유무역체제의 유지에 술선해 나아가는 것은, 수출을 둘러싼 각종 마찰을 완화 내지는 해소하고 보호무역적인 풍조를 억제하는 역할도 할 것이다. 또한 이에 의하여 거시적으로 전망하면 경제의 효율도 더욱 높아질 것이다.

그러나 시장개방의 진전과 무역구조의 변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게 될 산업이 속출 할 것이다. 그러므로 기업 활력을 형성·유지하고, 변화에 대응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시장기능의 유지·강화, 기술혁신을 통해서 경영기반을 새롭게 다져나 가야 한다.

21세기, 아시아·태평양의 중심에서 한민족시대가 열릴 것은 당연한 역사의 귀결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벤처인들은 우리민족에 내려준 새 역사의 흐름 속에서, 태평양시대의 주역으로서 민족의 역량을 총집결해 나가야 한다.

그런 뜻에서 볼 때 미래를 위해 준비해야 할 일들이 너무도 많다. 그러나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결국 사람이다. 열정과 사명감을 가지고 한 차원 높은 곳을 바라 보며 전진하는 젊은 벤처인의 세대가 있을 때, 비로소 역사는 우리의 것으로 다가오 고야 말 것이다.

따라서 우리 벤처인들 모두는 결코 역사의 방관자가 될 수 없다. 도도히 흘러가는 역사의 중심에서 한국적 비전을 새롭게 정립하고 열려있는 한민족의 세계화 시대를 이룩하는 대열과 함께 뛰어야 한다.

아우토반에, 사막에, 열대밀림에, 서러운 남의 땅에 그리고 대한민국 전체에 뿌렸던 뜨거운 우리 모두의 눈물이 싹을 틔워 오늘의 한국은 자라왔다.

가난한 나라를 뒤에 두고 멀리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나라없이 표류하는 민족이 어떤 것인지를 보지 못한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어 남의 나라로 가야 하는 절박함이 결국 무엇 때문인지를 알 수 없는 사람들은 조국의 고마움을 느낄 수가 없다.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이제 겨우 반쪽만이 배고픔에서 벗어난 한반도. 꺾어진 나머지 반쪽아리 땅에선 지구 곳곳에 밥을 구걸하고 있는 한겨레. 진정 우리가 어디쯤 와 있는 것이고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하는 질문은 이제 우리 스스로가 답해야 한다.